

2019회계연도 대변인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본 승인안은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2020년 5월 29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6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개요

가. 세입결산

- 세입징수결정액은 892,20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892,200원으로 전액 수납됨.

나. 세출결산

- 세출예산현액은 18억 4,443만원이고, 그 중 지출액은 18억 12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323만원임.

3. 세부내역

가. 세입결산

- 세입징수결정액 892,200원에 대하여 892,2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됨.

<세입결산 총괄>

(단위 : 원)

구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A)	실제수납액(B)	미수납액	비율(B/A)
합계		892,200	892,200	-	100%
일반회계		892,200	892,200	-	100%
세외수입		892,200	892,200	-	100%
임시적세외수입		892,200	892,200	-	100%

나. 세출결산

- 세출예산현액은 18억 4,443만원이고, 지출액은 97.7%인 18억 12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323만원임.

<세출결산 총괄>

(단위 : 원)

구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합계	1,844,430	1,801,203	43,227	97.7%
사업비	1,619,358	1,585,055	34,303	97.9%
보도기획기능강화	853,874	847,768	6,106	99.3%
시정보도지원체계 구축	765,484	737,287	28,197	96.3%
행정운영경비	225,072	216,148	8,924	96.0%
기본경비	225,072	216,148	8,924	96.0%

다. 예산이용, 전용, 이체, 변경사용

- 예산이용 : 해당사항 없음.
- 예산전용 : 해당사항 없음.
- 예산이체 : 해당사항 없음.
- 예산변경사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예비비 지출

- 해당사항 없음.

마.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4. 검토의견

가. 세입결산

- 세입예산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요경비의 재원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수입으로 재산임대, 사용료, 수수료, 이자수입과 과징금 및 과태료 등에 해당되는 세외수입과 국가로부터 지원되는 수입이 없는 대변인의 경우에는 세입을 편성할 수 없음.

다만, 2019회계연도의 경우 직원 1인의 자녀학비 보조수당(2분기×446,100원=892,200원) 착오지급 반납건(1건)이 발생하여 세외수입 처리함.

<세입결산 총괄>

(단위 : 원)

구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A)	실제수납액(B)	미수납액	비율(B/A)
합계		892,200	892,200	-	100%
일반회계		892,200	892,200	-	100%
세외수입		892,200	892,200	-	100%
임시적세외수입		892,200	892,200	-	100%

나. 세출결산

- 대변인 세출예산현액은 18억 4,443만원이고, 지출액은 18억 12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세출예산현액 대비 2.3%인 4,323만원임.

<세출결산 총괄>

(단위 : 천원)

구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총계	1,844,430	1,801,203	43,227	97.7%
일반회계	1,844,430	1,801,203	43,227	97.7%
사업비	1,619,358	1,585,055	34,303	97.9%
보도기획기능강화	853,874	847,768	6,106	99.3%
시정보도지원체계 구축	765,484	737,287	28,197	96.3%
행정운영경비	225,072	216,148	8,924	96.0%
기본경비	225,072	216,148	8,924	96.0%

- 최근 3년간 대변인 세출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높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나 2019회계연도 서울시 일반회계 집행잔액 비율 1.8%에 비해 0.5%p 높은 수치임.

<최근 3년간 대변인 세출결산 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A)	지출액(B)	집행잔액	집행률(B/A)
2019년	1,844,430	1,801,203	43,227	97.7%
2018년	1,681,061	1,627,175	53,886	96.8%
2017년	1,692,511	1,650,861	41,650	97.5%

- 가장 낮은 집행률을 보이는 사업은 “방송영상 및 사진자료 제공”으로 방송보도 아이টে을 선제적으로 기획·발굴·제공하여 시정성과를 적기에 확산하고자 6,222만원을 편성하였으나 7.5%인 46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함.

<세부사업별 세출결산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집행률
총 계	1,844,430	1,801,203	43,227	97.7%
사업비	1,619,358	1,585,055	34,303	97.9%
보도기획 기능 강화	853,874	847,768	6,106	99.3%
시정보도 간행물 구독 및 대화채널 구축	451,371	447,238	4,133	99.1%
시장관련 뉴스 정보제공 및 보도기능 강화	402,503	400,530	1,973	99.5%
시정보도 지원체계 구축	765,484	737,287	28,197	96.3%
방송모니터실 운영	106,339	100,872	5,467	94.9%
방송영상 및 사진자료 제공	62,217	57,539	4,678	92.5%
보도방송관리시스템 유지보수	97,304	96,750	554	99.4%
출입기자실 운영 및 취재지원	144,666	144,419	247	99.8%
해외미디어 취재 지원	200,000	189,207	10,793	94.6%
보도지원시스템 구축	154,958	148,500	6,458	95.8%
행정운영경비	225,072	216,148	8,924	96.0%
기본경비	225,072	216,148	8,924	96.0%

세부사업별 예산현액 대비 20%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은 “방송영상 및 사진자료 제공” 사업과 “기본경비”로 각각 24.3%, 38.4%의 불용율을 보이고 있음.

<20%이상 불용율 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율
방송영상 및 사진자료 제공	공공운영비	18,837	14,253	4,584	24.3%
기본경비	국내여비	20,580	12,687	7,893	38.4%

“방송영상 및 사진자료 제공”의 공공운영비는 예산현액 1,884만원 중 집행잔액 458만원이 발생하였으며 대부분 차량 수리비 절감으로 발생한 것임.

또한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는 예산현액 2,058만원 중 78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함. 매년 국내여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출장 수요를 파악하여 예산액을 산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낮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과거에도 수요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편성된 예산의 집행을 철저히 할 것을 지적한 바 있음.

최근 3년간 국내여비 집행액은 '19년도 1,269만원, '18년도 932만원, '17년도 1,551만원이며 '20년도는 최근 3년간 집행액을 고려하여 '19년 대비 518만원 감액편성하였음.

다. 예산이용, 전용, 이체, 변경사용 및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2019회계연도 대변인 소관 세출결산에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변경사용,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해당사항 없음

라. 총괄 의견

- 대변인은 서울시 각 실, 본부, 국 등에서 추진하는 시정 역점사업에 대해 전략적인 언론 홍보를 위해 온라인매체 취재지원, 부정확·왜곡 보도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 함께 외신 홍보 및 취재지원을 담당하는 지원부서 성격을 지님.
- 대부분 기본경비를 활용하는 비예산 사업으로 예산운용의 큰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으나 시정 홍보 제공 건수, 해명·설명자료 배포 건수 등을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있어 대변인실이 단순히 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도록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한편 「2019년도 해외언론보도분석 연간보고서」(’19.12.)에 따르면 서울시 관련 외신 보도건수는 총 3,964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약 27% 증가하여 지난 5개년 평균 보도건수를 크게 웃도는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주로 관광과 문화 관련 보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된 바,

이는 대변인의 성과를 넘어 시민소통기획관, 관광체육국 등 글로벌 홍보를 담당하는 유관부서의 역할이자 성과이기도 한 만큼 타 실국 본부와의 협업으로 시정홍보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